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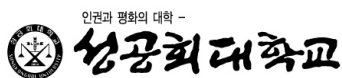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상숙 지음 |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130x195 | 260쪽 | 양장제본 | 2024년 1월 20일 출간



성공회대학교

책 소개

신앙인, 기업인, 그리고 사회학자인 저자가

한 세기 가까운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시대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김삼환 목사, 오정현 목사 추천!

2023년 2월, 주요 일간지에 특별한 학생의 이야기가 실렸다.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 5년간 공부를 마치고 국내 최고령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숙 선생이다.

1931년생인 이상숙 선생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온전히 겪어냈다. 우리의 역사가 그의 삶에 그대로 묻어있다. 저자는 신앙인으로, 또 바닥부터 시작한 기업인으로 이 삶을 살아왔다. 식민 시대의 아픔, 민족 분단의 고통, 이데올로기 대립과 같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오롯이 끌어안았다. 저자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신앙이었다.

저자는 사회학을 통해 기독교를 탐구하고자 했고, 인간 예수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연구 주제로 잡았다. 그 결과 <인간 예수의 '혁명적 순종'이 갖는 정치윤리와 레비나스의 케노시스론>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책 <용서하십시오>에는 박사논문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한 세기 가까운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겸손과 용서의 중요함을 풀어냈다.

이 책은 기업인인 저자의 치열한 삶에 관한 자서전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 저자의 사상과 그에 따른 실천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이기도 하며, 또 신앙인으로서의 저자가 한평생 붙들었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이웃을,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남기는 삶의 지침서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분열과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며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상숙** 박사

1931년 용인 출생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주식회사 소예 대표이사

숙명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숙명선교회 회장, 이사장

한국CBMC(기독실업인회) 부회장

국제CBMC 이사

CBMC-NBI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장, 고문

기독교통일학회 고문

책 속으로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이 분명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 글이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인연들로부터 빛을 지고 있는 제 삶입니다.

* * *

외람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정하는 힘보다는 긍정하는 힘을 가르치고 길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거나, 미움과 증오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서로를 보다 깊이 사랑하며 만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 보니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그래서 남의 편은 모두 없애고, 내 편만 살아남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갈라지고 미워하기 보다는 서로 만나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 *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를 보아야 한다고, 조금 쉬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닭장에 닭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대로 좋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튕겨 나간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 * *

전체주의화한 세계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말하는 자유는 사실상 변덕에 불과합니다. ... 때때로 변덕스러운 인간들이 운명을 말하고 목적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 언사들은 그들이 가진 타자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장식물일 뿐입니다.

* * *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삽자가가 곧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 *

용서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품은 우리가 안심하고 태해도 괜찮은 유일한 길입니다.

- 본문 중

편집자의 글

저자 이상숙 박사님은 올해로 만 93세이십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군사정권의 독재와 민주화시대를 온 몸으로 겪은 우리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 책은 단지 거친 역사를 살아온 한 개인의 성공담이나 회고록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정말 드물었던 여성 기업인으로서, 또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마주한 삶의 기록이며 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기업인이자 학자이며, 또 신앙인인 저자가 전하는 삶의 진솔한 충고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진영논리와 혐오가 더 큰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